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셜 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Mothers with Infants on Parenting Behavior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by Social Support on Social Media

1차원고접수: 2024.04.09. 수정원고접수: 2024.06.05. 최종게재결정: 2024.06.23.

오미라¹ · 민하영²

¹대구과학대학교 평생학습상담과, 조교수

²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Oh, Mi Ra¹

Min, Ha Yeoung²

¹Dept. of Lifelong Learning and Counseling, Taegu Science University

²Dept. of Child Stud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국문초록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매개관계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30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의 단순 및 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14번을 이용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기본심리욕구와 긍정적인 양육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양육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영향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영향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증진을 위해 기본심리욕구와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 관리 시, 인터넷 기반의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활용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기본심리욕구,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조절된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how parenting stres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s with infants. The study also looks at how social support on social media might moderate this mediated relationship. To empirically verify a moderated mediation pathway, data were collected from 304 mothers of children under 3 years of age through paper questionnaires and online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using simple regression, multiple regression, process macros model 14 and bootstrapping in IBM SPSS Statistics 22 for Windo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parenting str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arenting behaviors. Second, mothers'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behavior was moderated by social support on social media. Parenting stress had a greater negative effect on positive parenting behavior when the level of social support on social media was low rather than high. Third, mothers' social support on social media positively moderated both paths of this mediated relationship. Depending on the level of social support on social media, the indirect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parenting behaviors through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use of Internet-based social support when manag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arenting stress in relation to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Keywords *basic psychological need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social support on social media, moderated mediation*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수정 · 보완한 것이며 한국인간발달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논문을 확장한 것임.

Corresponding to 민하영 (Min, Ha Yeoung)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Dept. of Child Stud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E-mail, hymin@cu.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통계청, 2023).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20년 동안 경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국가로의 이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양육과 관련된 특히, 영아기 양육과 관련된 경험적 자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특히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2024 대한민국 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내적 긴장이나 신체적 피로감 등을 증가시키는 양육스트레스(Abidin, 1992)는 ‘행복한 선택’으로서의 양육’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우선 관리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저출산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측면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양육자의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영아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의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의 선행변인(민하영, 이영미, 2009; 이석호, 이주연, 2012; Ainsworth, 1979; Deater-Deckard, 2004; Jackson & Choi, 2018; Lindo, Kliemann, Combes, & Frank, 2016; Putnick et al., 2008; Rohner & Khaleque, 2005; Thompson, 2008)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부모는 보다 적대적이고 권위 중심적 양육행동(Crnic, Gaze, & Hoffman, 2005; Jackson & Choi, 2018)과 보다 낮은 애정적 양육행동(민하영, 이영미, 2009)을 보인다. 이것은 좌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공격 행동의 동인이 된다고 주장한 Berkowitz(1969)의 가설처럼 양육스트레스에 의한 부정적 정서가 어머

니의 부정적 행동과 태도를 견인(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행동 수행(performance)임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The 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 기반한 기본심리욕구는 행동 수행의 동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존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 뿐 아니라 심리적 욕구를 갖는다. 식욕, 배설, 수면욕 등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라면 Ryan과 Deci(2000)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인간이 지니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라고 보았다. 자율성은 행동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려는 욕구(autonomy), 유능성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환경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competency), 관계성은 안정적인 관계 획득을 통해 타인에게 이해받고 돌봄 받는다는 느낌을 얻고자 하는 욕구(relatedness)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적응 행동을 향상시키지만 좌절은 부적응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nsteenkiste & Ryan, 2013). 부모-자녀의 기본심리욕구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Berzonsky, 2003)에서는 대부분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부모의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어머니의 적응적인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으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의 중요성이 언급(Costa, Gugliandolo, Barberis, Cuzzocrea, & Liga, 2019; De Haan, Soenens, Deković, & Prinzie, 2013; Mabbe, Soenens, Vansteenkiste, Van der Kaap Deeder, & Mouratidis, 2018; Van der Kaap-Deeder et al., 2015)되기 시작하였다.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머니의 기본욕구충족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3 ~ 6세 자녀를 둔 429명의 이스라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된 어머니일수록 보다 자율적이며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냈다. 반면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된 어머니일수록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나

타냈다(Arden, Katz, & Slobodin, 2022).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어머니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려할 부분은 기본심리욕구가 스트레스의 선행변인이라는 점이다.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어 만족되지 못하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울(Campas, Grant, & Ey, 1994), 분노(김은경, 고진강, 2016)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가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부정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toumanis, Edmunds, & Duda, 2009; Skinner & Wellborn, 1994).

이러한 사실은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선행변인으로 기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는 기본심리욕구가 직무 스트레스를 매개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장인 대상 연구(Ariani, 2021) 결과와 유사하게 부모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이 스트레스를 매개로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Dieleman et al., 2019; Van der Kaap-Deeder et al., 2015)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양육스트레스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의 선행변인이라는 점과 부모의 스트레스가 기본심리욕구와 양육행동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을 고려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대한 기본심리욕구의 영향을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선행변인(기본심리욕구), 매개변인(양육스트레스), 결과변인(양육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완충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Cm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Lutz et al., 2012)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부터 대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심리

적, 정서적, 물질적 도움을 의미한다. 역학(epidemiology) 전공자로 사회적 지지 연구의 물길을 튼 Cassel(1976)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효과(buffering)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지지의 완충 모델(The buffer theory of social support)을 주도적으로 검증한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확인되었다(배점모, 2015; Leahy-Warren, 2014). 아동학 분야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지각되는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행동에 미치는 생활 및 양육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aguire-Jack & Negash, 2016; Ostberg & Hagekull, 2000). 생후 6 ~ 8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채진영, 박유정, 2016)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애착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의 양육스트레스와 자활의지 간 관계 연구(김규림, 황혜원, 2023)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김규림과 황혜원의 연구(2023)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평균 이상과 이하인 집단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완화되었지만, 평균 집단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육스트레스와 적응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지각되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 관계가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기능함을 함의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계속되지만, 영아는 유아나 학령기 아동과 달리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일상적 요구가 높다는 점(송연숙, 김영주, 200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후 3년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서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기(Burke &

Abidin, 1980)임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영아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영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낮추게 함으로써 영아의 발달적 적응을 위협할 가능성을 높인다(Adams, 2006).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심과 중재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 과정이 어머니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오프라인상에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COVID-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었던 사회적 상황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사회적 지지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자원이 오프라인에 집중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생활이 현실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확장 전이되면서 온라인 공간을 또 다른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상돈, 이수영, 김군주, 2015). 특히 2021년 신생아를 출산한 어머니의 연령은 25 ~ 29세가 17.6%, 30 ~ 34세가 44.3%, 35 ~ 39세 29.3%로 어머니 대부분이 MZ세대에 속한다(통계청, 2022). 이들은 인터넷과 다양한 IT디바이스를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정보 교류가 익숙한 세대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출산 전과 비교해 외부 또는 타인과의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선호한다(Madge & O'Connor, 2006; Oh, 2020).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는 대면에 기반한 기존의 사회적 지지 경험과 비교하면 새로운 사람이나 모임 등에 접근이 용이하고,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종결하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낮다(Wright et al., 2013).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영아기 자녀를 둔 MZ세대 어머니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육아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탐색(Gibson & Hanson, 2013)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육관 형성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Arnold & Martin, 2016; Drentea & Moren-Cross, 2005; Gleeson, Craswell, & Jones, 2019).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함께 건강과 삶의 질 만족 증진을 위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과정이 사회적 지지(Cohen, Underwood, & Gottlieb, 2000)라는 정의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지지의 범위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대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매개로 인한 간접영향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조절된 매개효과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나 방향이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James & Brett, 1984). 이에 따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간접영향을 미치는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조절변수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본 후, 매개변수에 기반한 간접효과가 조절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과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간접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간접효과가 조절변수인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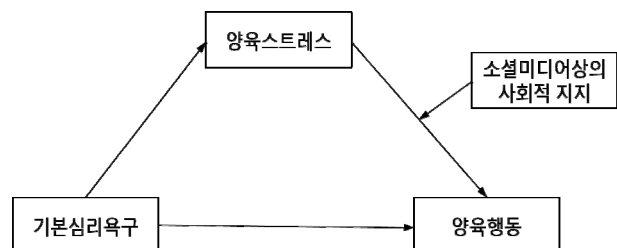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델

연구문제 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가?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63세($SD = 4.10$)로 30대가 229명(75.3%), 20대가 45명(14.8%), 40대가 30명(9.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을 위해 고려한 자녀의 평균 개월 수는 24.57개월($SD = 7.76$)로 12개월 미만이 33명(10.9%),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 98명(32.2%), 25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 173명(5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Rohner와 Khaleque(2005)가 개발한 부모 수용-거부 단축형(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_Short Form; PARQ_SF)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내 아기가 나를 쉽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등 온정/애정(warmth/affection) 8문항, “나는 내가 화가 났을 때 아기를 심하게 혼낸다.” 등 적대/공격(hostility/aggression) 6문항, “나는 내 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종종 잊어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중 양육과 관련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머니 304명을

표 1.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

($N = 304$)

변인		변인구분	빈도	%
어머니	연령대	20대	45	14.8
		30대	229	75.3
		40대	30	9.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	9.5
		2년(3년)제 졸업	69	22.7
		4년제 졸업	194	63.8
		대학원 재학 이상	12	3.9
	취업 여부	취업	93	30.6
		미취업	211	69.4
자녀	자녀 수	1명	192	63.2
		2명 이상	112	36.8
	출생 순위	첫째	215	70.7
		둘째 이상	89	29.3
	개월 범주	12개월 미만	33	10.9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98	32.2
		25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73	56.9

버린다” 등 무관심/방임(indifference/neglect) 6문항, “나는 내 아기가 귀찮다.” 등 일반적 거부(undifferentiated rejection) 4문항으로 총 24문항이다. 온정/애정 외 문항은 역산처리하였으며 4점 Likert식으로 측정된 척도의 점수 범위는 24점 ~ 9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하는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온정/애정 .76, 적대/공격 .82, 무관심/방임 .81, 일반적 거부 .80이었고, 양육행동 전체 신뢰도는 .92로 확인되었다.

2)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Ryan과 Deci (2002)의 기본심리욕구 척도 BPNS(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를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변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등 자율성 6문항,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일을 잘한다고 말한다.” 등 유능성 6문항,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등 관계성 6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자율성 네 문항과 관계성 한 문항은 역산처리하였으며 6점 Likert식으로 측정된 척도의 점수 범위는 18점 ~ 10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높음을 의미하는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율성 .74, 유능성 .76, 관계성 .70이었고, 기본심리욕구 전체 신뢰도는 .86으로 확인되었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개발한 PSI (Parenting Stress Index) 4판의 단축형인 PSI-SF를 정경미, 양윤정, 정승민, 이경숙과 박진아(2019)가 국내에서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SF)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부모로서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등 부모의 고통 12문항, “우리 아기는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등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12문항, “우리 아기는 보통 다른 아기들보다 내게 더 많은

요구를 한다.” 등 까다로운 아동 12문항으로 총 36문항이다.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한 문항과 까다로운 아동 한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5점 Likert식으로 측정된 척도의 점수범위는 36점 ~ 18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는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부모의 고통 .86,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91, 까다로운 아동 .87이었고, 양육스트레스 전체 신뢰도는 .95로 확인되었다.

4) 어머니가 지각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박지원의 사회적 지지 척도는 정서적 지지 7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척도는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문항이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의 척도에서 어머니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 있는 문항들을 선정하고, 문항의 내용을 소셜미디어 사용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모두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는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육아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준다.”로, “그들은 모두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육아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공해 준다.” 등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물질적 지지는 금전적 지원, 과업 분담 등 오프라인 사회관계망에 적합한 질문이기에 온라인 공간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관계 형성 등에 초점을 둔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질적 지지는 제외하였다.

문항의 선정과 수정을 위해 1차로 아동발달 전문가 1인, 아동학 박사과정 수료자 2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문항 구성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2차로 실제 양육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 3인으로부터 문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설문지 수거 후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모형 적합도는 KMO .89로 .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누적설명력은 60.07%로 60%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문항과 요인 간의 상관 정도를 보여주는 요인적재치는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났고, 요인으로 묶인 문항 이외의 문항은 요인적재치가 .4 미만으로 확인되어 하위요인별 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항은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육아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준다.” 등 정서적 지지 4문항,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육아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준다.” 등 평가적 지지 4문항,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해 내가 겪는 육아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는다.” 등 정보적 지지 4문항으로 총 12문항이다. 최종 선정된 문항은 5점 Likert식으로 역산 처리한 문항은 없으며 전체점수 범위는 12점 ~ 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를 자각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정서적 지지 .80, 평가적 지지 .79, 정보적 지지 .74였고,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전체 신뢰도는 .87로 확인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과정과 연구방법의 윤리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친 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2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두달 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대구 경북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의 시설장에게 연구 동의를 구한 후 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분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온라인의 경우 URL 링크를 통해 온라인 질문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한 후, 연구자의 지인을 비롯하여 전국 단위의 맘카페 1곳과 지역단위의 맘카페 1곳에 설문을 의뢰하였다. 또한, 온라인 질문지 접근경로를 QR코드로 생성하여 어린이집 등·하원을 위해 차량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에게도 연구 참여를 의뢰하였다. 수집된 347명의 자료 중 한 문항이라도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는 제외하고 최종 30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단순회귀분석,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Hayes(n.d.)의 14번 모델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2.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척도 요인분석 결과

문항	공통성	요인		
		1	2	3
정서3	.70	.79	.22	.15
정서4	.64	.76	.14	.22
정서1	.62	.73	.23	.18
정서2	.58	.62	.39	.17
평가2	.59	.19	.73	.18
평가3	.67	.32	.73	.17
평가4	.61	.24	.72	.19
평가1	.55	.15	.67	.27
정보2	.58	.10	.13	.75
정보1	.61	.13	.21	.74
정보3	.55	.24	.22	.66
정보4	.51	.22	.19	.65
요인명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고유값		2.47	2.46	2.28
설명력		20.61	20.46	19.00
누적설명력		20.61	41.07	60.07
KMO = .89, Bartlett's $\chi^2 = 1250.64(df = 66), p = .000$				
Rotation Method : Varimax				

III.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양육행동은 기본심리욕구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61, p < .001$)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67, p < .001$).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기본심리욕구와도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r = -.52, p < .001$),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 = -.02, p > .05$). 반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는 기본심리욕구($r = .40, p < .001$)와 양육행동($r = .22, p < .001$) 간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자료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의 왜도 절댓값은 2보다 낮고 첨도 절댓값은 7보다 낮아 수집된 자료들이 정규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Byrne, 2010)으로 확인되었다.

1.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긍정적 양육행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을 고려해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 관계의 유의성을 단순회귀로,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의 유의성을 단순회귀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의 유의성과 함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의 크기 변화를 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4의 1단계에서 나타나듯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는 매개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B = -1.10, p < .001$). 이것은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

표 3. 변인 간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기본심리욕구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기본심리욕구	1			
양육행동	.61***	1		
양육스트레스	-.52***	-.67***	1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40***	.22***	-.02	1
<i>M</i>	74.57	74.14	102.55	43.60
<i>SD</i>	11.88	13.64	25.09	7.29
왜도	.35	-.18	-.30	-.18
첨도	-.32	-1.26	-.26	.27

*** $p < .001$.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상수 (S.E.)	<i>B</i> (S.E.)	β	<i>F</i> (<i>df</i>)	<i>R</i> ²	ΔR^2	D-W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기본심리욕구→ 양육스트레스	184.86 (7.83)	-1.10 (.10)	-.52***	113.35*** (1,99)	.27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본심리욕구→ 양육행동	21.96 (3.96)	.70 (.05)	.61***	178.23*** (1,302)	.37	
3단계	독립, 매개변인→ 종속변인	기본심리욕구, 양육스트레스→	70.04 (5.74)	.41 (.05)	.10	174.93*** (2,301)	.54	1.86
		양육행동						

주. D-W: Durbin-Watson.

*** $p < .001$.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종속변인인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B = .70, p < .001$). 이것은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보다 많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되는 3단계에서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2개의 설명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 VIF를 살펴보았다. VIF는 기준치 10미만 값인 1.38이 나왔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D-W 지수는 기준치 2미만인 1.86으로 나타났다. 이는 잔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회귀분석 모형이 적절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중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B = -.26, p < .001$). 한편 독립변인인 기본심리욕구는 2단계에서 나타난 B 값 .70보다 크기가 감소된 $B = .41(p < .001)$ 을 나타냈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해석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기본심리욕구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은 .21과 .37로 두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변인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소셜미디어기반 사회적 지지의 센터링 값(변인값에서 평균값을 뺀 값)을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항 변인을 구성하였다. 중회귀분석 전 VIF 지수를 통해 다중공선성과 D-W 지수를 통해 잔차항들의 독립성을 살펴보았다. VIF는 기준치 10미만 값인 1.09에서 1.11이 나왔으며, D-W 지수는 기준치 2미만인 1.80이 나와 중회귀분석 모형이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중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1, p < .001$). 한편 여기서 고려할 점은 독립변인이 음수일 때 상호작용항이 양수인 것은 조절변수가 상승할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부(-)의 방향으로 약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는 점(Aiken, & West, 1991)이다. 양육스트레스의 B 값이 -.39로 음수인데 반해, 양육스트레스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의 B 값은 .01로 양수로 나타났으므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올라갈 때 양육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표 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구분	Effect	se	95% CI	
			LL	UL
간접효과	.29	.04	.21	.37

표 6.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변인	$B(S.E.)$	β	$F(df)$	R^2	ΔR^2	D-W
상수	94.79(4.07)					
양육스트레스(A)	-.39(.02)	-.71***	104.26***	.51	.02***	1.80
소셜미디어기반 사회적 지지(B)	.43(.08)	.23***	(3,303)			
A×B	.01(.003)	.16***				

주. D-W: Durbin-Watson.

*** $p < .001$.

영향이 부(-)의 방향으로 약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단순회귀선 검증에 기반한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양육행동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기울기가 부(-)의 방향으로 둔화되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 때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 때, 양육스트레스에 의한 긍정적 양육행동의 위축이 크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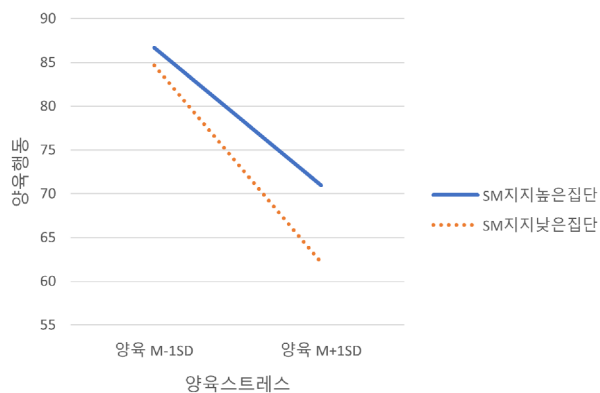


그림 2.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검증

3.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n.d.)의 Process macro 모델 14번을 이용해 조절된 매개지표(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이형권, 2020). 그리고 조절변인인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한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008$ 이었고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은 $-.016 \sim -.002$ 로 나타났다.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조절된 매개지수가 $-.008$ 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

표 7.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변인	Index	Boot se	95% CI	
			LL	UL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008	.003	-.016	-.002

표 8.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조절변인	Effect	Boot se	95% CI	
			LL	UL
M-1SD	.38	.06	.27	.51
M	.33	.05	.25	.44
M+1SD	.27	.04	.19	.36

준이 감소할 때,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이 확인됨에 따라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평균값(M)과 평균값 $\pm$ 1SD 수준으로 나누어 Bootstrapping을 통해 조절변인 수준에 따른 매개변인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표 8에 나타나듯 조절변인의 수준이 평균값(M)-1SD인 경우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는 $B = .38$, 평균값(M)인 경우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는 $B = .33$, 그리고 평균값(M)+1SD인 경우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는 $B = .27$ 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크기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 각각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304명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을 활용하여 Process macro 모델 14번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Bootstrapping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미치는 기본심리욕구의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첫째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종속변인인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만족감이나 행복감 등 긍정적 정서를 촉발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수행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Costa et al., 2019; De Haan et al., 2013; Mabbe et al., 2018; Van der Kaap-Deeder et al., 2015) 및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된 어머니일수록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Arden et al., 2022)와 유사한 것이다. 둘째, 매개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종속변인인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의 선행 요소로 기능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부모의 경우 낮은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민하영, 이영미, 2009)이며, 보다 적대적이고 권위 중심적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Crnic et al., 2005; Jackson & Choi, 2018)와 유사한 것이다. 셋째, 부모의 기본심리욕구는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양육스트레스를 통해서도 양육행동에 간접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부모의 기본심리욕구가 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Dieleman et al., 2019; Van der Kaap-Deeder et al., 2015)의 결과와 유사하다. 부모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긍정적 양육행동보다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기 쉽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자율성, 유능성 또는 관계성 욕구에 대한 낮은 충족은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행동 대신 보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촉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 경감을 중심으로 영아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완충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채진영, 박유정, 2016; Maguire-Jack & Negash, 2016; Ostberg & Hagekull, 2000)를 지지하는 것이다. 양육에 관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지원될 때, 양육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양육행동의 위축이 완화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완충 모델처럼 양육스트레스로 위축될 수 있는 긍정적 양육행동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충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비대면을 토대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지 또한 완충의 기능이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가 대면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가 나타내는 완충효과는 온/오프 사회적 네트워크로 사회적 지지 범위가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영향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부(-)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매개변인에 의한 간접효과의 크기 감소는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 좌절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긍정적 양육행동이 위축될 위험성을 보호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 좌절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으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긍정적 양육행동은 위축될 수 있다.

절대적 보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영아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인 동시에 영아기 자녀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영아 모두의 나은 삶을 위해 양육스트레스의 관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행복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영아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긍정적 양육행동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보호적 변인이 되는 기본심리욕구와 위기적 변인이 되는 양육스트레스 측면에서 살펴본 이 연구는 위기적 변인 조차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관리될 수 있음을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의 측정을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인용해 사용함으로써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현대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는 추후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과 함께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현대의 어머니들에게 있어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보편적인 생활양식이

되었고,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범위는 일상 속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기반으로 MZ세대 어머니들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콘텐츠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건강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외에 소셜미디어상의 양육 공유인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한 연구(Holiday, Norman, & Densley, 2022; Udenze & Bode, 2020)가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규림, 황혜원 (20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가구의 양육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8), 575-589.
<https://doi.org/10.5392/JKCA.2023.23.08.575>
- 김은경, 고진강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분노,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24(3), 151-160.
<https://doi.org/10.17547/kjsr.2016.24.3.151>
- 민하영, 이영미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스트레스 및 애정 - 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03-213.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점모 (2015).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49-70.
<https://doi.org/10.18398/kjlgas.2015.29.4.49>
- 송연숙, 김영주 (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 개발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https://doi.org/10.21193/kjspp.2008.22.4.010>
- 이상돈, 이수영, 김군주 (2015). 소셜미디어와 사회적 지지 경험: 페이스북의 게시글에 대한 타 이용자의 반응유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2(1), 85-121.
- 이석호, 이주연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련 변인 연구: 양육행동의 하위영역별 비교. *한국보육*

- 학회지, 12(1), 111-130.
- 이형권 (2020). Process macro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파주: 신영사.
- 정경미, 양윤정, 정승민, 이경숙, 박진아 (2019).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4판 단축형(K-PSI-4-SF)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4), 785-807.
<https://doi.org/10.17315/kjhp.2019.24.4.001>
- 채진영, 박유정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23(4), 101-120.
<https://doi.org/10.15284/kjhd.2016.23.4.101>.
- 통계청. (2022).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300&bid=204&act=view&list_no=419974에서 2024년 4월 6일 인출
- 통계청. (2023). 2023년 9월 및 3분기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300&bid=204&act=view&list_no=428277&tag=&nPage=1&ref_bid에서 2024년 4월 6일 인출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MZ세대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소구하는 콘텐츠 분석 및 제언. 나주, 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Database record]. APA PsycTests.
<https://doi.org/10.1037/t02445-000>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Adams, K. L. (2006). *Parental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observed parent child interaction*. New York: Pace University.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Sage.
- Ainsworth, M. S. (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10), 932-937.
<https://doi.org/10.1037/0003-066X.34.10.932>
- Arden, A., Katz, I., & Slobodin, O. (2022). Psychological need-based experiences as energizing processes for mothers'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2, 2573-2587.
<https://doi.org/10.1007/s10826-022-02258-5>
- Ariani, D. W. (2021). Job stress, motivation, and job performance: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4(1), 1-11.
- Arnold, L. B., & Martin, B. A. (2016). Mothering and social media: Understanding, support, and resistance. In L. B. Arnold, & B. Martin (Eds.), *Taking the village online: Mothers, motherhood, and social media* (pp. 1-10). Ontario: Demeter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erkowitz, L. (1969). *Roots of aggression: A re-examination of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New York: Atherton Press.
- Berzonsky, M. D. (2003). Identity style and well-being: Does commitment matter? *Identity*, 3(2), 131-142.
<https://doi.org/10.1207/S1532706XID030203>
- Burke, W. T., & Abidin, R. R. (1980). Parenting stress index (PSI): A family system assessment approach. In R. R. Abidin (Ed.), *Parenting education and intervention handbook* (pp. 516-527).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Byrne, B. M. (201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ew York: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726532>
- Campas, B. E., Grant, K. E., & Ey, S. (1994). Psychological stress and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Can we be more specific? In W. M. Reynolds & H. Johnston (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509-523). New York: Plenum Press.
- Cassel, J. (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The fourth Wade Hampton Frost lectur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4(2), 107-123.
<https://doi.org/10.1093/oxfordjournals.aje.a112281>
- Cohen, S., Underwood, L. G., & Gottlieb, B. H. (2000).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med:psych/9780195126709.001.0001>
- Costa, S., Gugliandolo, M. C., Barberis, N., Cuzzocrea, F., & Liga, F. (2019).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support: The role of psychological basic need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4), 1168-1189.
<https://doi.org/10.1177/0265407518756778>
-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4(2), 117-132.
<https://doi.org/10.1002/icd.384>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1), 209-217.
https://doi.org/10.2307/1129878
- De Haan, A. D., Soenens, B., Deković, M., & Prinzie, P. (2013). Effects of childhood aggression on parenting during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al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2(3), 393-404.
https://doi.org/10.1080/15374416.2013.769171
- Deater-Deckard, K. (2004). *Parenting stress*. CT: Yal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2987/yale/9780300103939.001.0001
- Dieleman, L. M., Soenens, B., Vansteenkiste, M., Prinzie, P., Laporte, N., & DePauw, S. S. W. (2019). Daily sources of autonomy suppor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SD: The role of child behavior and mothers'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9, 509-526.
https://doi.org/10.1007/s10803-018-3726-3
- Drentea, P., & Moren-Cross, J. L. (2005). Soci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on the web: The case of an internet mother site.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27(7), 920-943.
https://doi.org/10.1111/j.1467-9566.2005.00464.x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4_1
- Gibson, L., & Hanson, V. L. (2013). Digital motherhood: How does technology help new mothers?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313-322).
https://doi.org/10.1145/2470654.2470700
- Gleeson, M. D., Craswell, A., & Jones, C. M. (2019). Women'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related to childbearing: An integrative review. *Women and Birth*, 32(4), 294-302.
https://doi.org/10.1016/j.wombi.2018.10.010
- Hayes, A. F. (n.d.). PROCESS(Computer Software). Retrieved February 1, 2022, from https://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
- Holiday, S., Norman, M. S., & Densley, R. L. (2022). Sharenting and the extended self: Self-representation in parents' Instagram presentations of their children. *Popular Communication*, 20(1), 1-15.
https://doi.org/10.1080/15405702.2020.1744610
- Jackson, A., & Choi, J. K. (2018). Parenting stress, harsh parenting, and children's behavior. *Journal Family Medicine & Community Health*, 5(3), 1150-1158.
- James, L. R., & Brett, J. M. (1984). Mediators, moderators, and tests for medi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2), 307-321.
https://doi.org/10.1037/0021-9010.69.2.307
- Leahy-Warren, P. (2014). Social support theory. In J. J. Fitzpatrick & G. McCarthy (Eds.), *Theories guiding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Making nursing knowledge development explicit* (pp. 85-101).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ndo, E. J., Kliemann, K. R., Combes, B. H., & Frank, J. (2016). Managing stress level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eta-analytic review of interventions. *Family Relations*, 65(1), 207-224.
https://doi.org/10.1111/fare.12185
- Lutz, K. F., Burnson, C., Hane, A., Samuelson, A., Maleck, S., & Poehlmann, J. (2012).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in families of multiple and singleton preterm toddlers. *Family Relations*, 61(4), 642-656.
https://doi.org/10.1111/j.1741-3729.2012.00726.x
- Mabbe, E., Soenens, B., Vansteenkiste, M., van der Kaap Deeder, J., & Mouratidis, A. (2018). Day-to-day variation in autonomy suppor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The role of parents' daily experiences of need satisfaction and need frustration. *Parenting*, 18(2), 86-109.
https://doi.org/10.1080/15295192.2018.1444131
- Madge, C., & O'Connor, H. (2006). Parenting gone wired: Empowerment of new mothers on the internet?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7(2), 199-220.
https://doi.org/10.1080/14649360600600528
- Maguire-Jack, K., & Negash, T. (2016). Parenting stress and child maltreatment: The buffering effect of neighborhood social servic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0, 27-33.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5.11.016
- Ntoumanis, N., Edmunds, J., & Duda, J. L. (2009). Understanding the coping process from a self 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2), 249-260.
https://doi.org/10.1348/135910708X349352
- Oh, E. (2020). The strength of information: Maternal education and child-rearing in urban Korea. In H. Park, & H. Woo (Eds.), *Korean families yesterday and today* (pp. 43-70).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O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4), 615-625.

-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904_13
- Putnick, D. L., Bornstein, M. H., Hendricks, C., Painter, K. M., Suwalsky, J. T. D., & Collins, W. A. (2008). Parenting stres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self-concept in Europ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752-762. <https://doi.org/10.1037/a0013177>
- Rohner, R. P., & Khaleque, A. (2005). Introduction to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methods, evidence, and implications. In R. P. Rohner, & A. Khaleque (Eds.),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4th ed., pp. 1-35).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https://doi.org/10.1177/1069397107309749>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Skinner, E. A., & Wellborn, J. G. (1994). Coping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otivational perspective. In D. L. Featherman, R. M. Lerner, & M. Perlmutte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12, pp. 91-133).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Thompson, R. A. (2008). Early attachment and later development.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48-365). New York: Guilford Press.
- Udenze, S., & Bode, O. S. (2020). Sharenting in digital age: A netnographic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arshan Institute on Engineering Research and Emerging Technologies*, 9(1), 29-34. <https://doi.org/10.13140/RG.2.2.14790.29761>
- Van der Kaap-Deeder, J., Vansteenkiste, M., Soenens, B., Loeys, T., Mabbe, E., & Gargurevich, R. (2015). From autonomy supportive parenting to autonomy-supportive sibling interactions: The role of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11), 1590-1604. <https://doi.org/10.1177/0146167215602225>
- Vansteenkiste, M. & Ryan, R. M. (2013). On psychological growth and vulner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need frustration as a unifying principal.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3(3), 263-280. <https://doi.org/10.1037/a0032359>
- Wright, K. B., Rosenberg, J., Egbert, N., Ploeger, N. A., Bernard, D. R., & King, S. (2013). Communication competence,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model of facebook and face-to-face support network influenc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18(1), 41-57. <https://doi.org/10.1080/10810730.2012.688250>